

가정

하나님께
 예배 드립니다.



성경이야기

여러분, 혹시 게임을 할 때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떤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, 어떤 친구는 이기려고 속이기도 할 거예요. 그러면 게임이 재미있을까요? 아마 금방 싸움이 나고 엉망이 될 거예요. 규칙이 있어야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지요.

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.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.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고, 그 돈으로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,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. 나중에는 레위 사람을 데려와 제사장으로 삼기도 했어요.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,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,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. “이 정도면 괜찮겠지!”라고 생각하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.

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?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. “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.” 즉,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, 자기 생각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 대신 ‘내 마음’이 기준이 된 거예요.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. “이 정도는 괜찮겠지?”, “내가 하고 싶으니까 할래!”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있지요.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.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.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까요? 내 마음이 왕이었나요,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셨나요? 우리 함께 결단해요!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! 함께 외쳐볼까요? “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!”

